

소나무 시름시름... 산림자원 사수 비상

재선충 확산·태풍·생육환경 악화로 고사목 속출
 지난해 1만8000여 그루 제거...올해도 지속 전개
 재선충 완벽 방제·숲가꾸기·갱신 등 대대적 추진

22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중산간 일대. 이 곳에서는 수령 40-50년쯤 돼 보이는 소나무(해송)들이 누렇게 말라죽어 제거작업이 한창이었다. 제주지역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소나무 고사목이 무더기로 발생해 소나무림 사수에 비상이 걸렸으며 산림당국은 소나무림 관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옆친데 달친격으로 지난해 연이어 제주를 강타한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소나무 고사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사목 실태**-제주의 대표적 산림경관자원인 소나무림을 지키기 위해 이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와 숲가꾸기를 통한 대대적인 숲가꾸기, 천연·인공 갱신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졌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작년 한해 재선충병과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나무 고사목은 2만3000여 그루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해 1만8000여 그루가 제거됐으며 올해도 제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의 산림면적 8만9000여ha 가운데 소나무림은 1만6000여ha, 18%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40-60년생 장령림이 많고 빼곡한 하층식생, 덩굴류가 덮고 있는 등 생육환경마저 열악해 외적 환경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 임지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있지만 해발 200m 아래쪽 소규모 임지에는 숲가꾸기 등 숲가꾸기 손

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재선충병 확산** 일로-지난 2004년 제주에서 처음 확인된 소나무재선충병도 지금까지 67ha에 261그루가 발생해 대대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확산을 저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0년 구좌읍과 대정읍 지역에 감염목이 발생해 새로운 신단지를 형성한 이후에도 지난해 11월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서도 감염목 4그루가 확인돼 서귀포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책은 뭘가**-제주자치도는 소나무림 특별관리를 위해 이달중 산림청과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뒤 민·관·학 합동으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숲가꾸기 중심의 임업적 관리를 통해 해송림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천연·인공갱신을 검토중이다. 하반기에는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오는 2015년까지 완벽방제 목표를 세웠다. 피해지역 외곽부터 고사목 제거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오름과 관광지, 유적지 등을 대상으로 예방용 나무주사를 시행한다. 항공방제는 150ha에서 500ha로 확대한다.

제주자치도 고영복 녹지환경과장은 "소나무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임업적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시영기자 sykang@ihalla.com**



소나무 고사목 제거작업. 제주특별자치도가 22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일대에서 소나무 고사목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강경민기자 photo6n6@ihalla.com

농업유산 '돌담밭' 보전·활용 전기

정부·도, 3월 세계농업유산 신청·5월 등재 목표
 올해부터 3년간 15억 투자 정비·환경개선 추진
 조례 제정·전수조사 실시... 장인 육성 등 병행

제주의 상징 중 하나인 '돌담밭'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분보 21일자 1면)을 계기로 보전관리와 브랜드로 활용에 나가는데 분수령을 맞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이달부터 후속대책에 착수, 오는 3월 유엔농업유산기구(FAO)가 주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고 이어 5월 일본에서 열리는 포럼에 발표, 등재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제주 돌담밭의 경우 아직 미흡한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관련기사 2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돌담밭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보전활용을 위한 후속대책에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선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이달중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다음달 심의위원회의 사전 현장답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3월에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뒤 5월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포럼에서 등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청산도 구들장논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많이 해 온데 비해 제주 돌담밭은 아직 미흡한게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유엔농업유산기구가 주도하기 때문에 돌담 농업과의 연계성, 토지 이용 등에 대해 완벽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 돌담밭의 보전 활용계획도 제시했다. 산·학·관·연 전문가그룹 20명 내외로 TF팀을 구성·운영해 보전활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3년간 국비(10억5000만원)와 지방비(4억5000만원) 등 15억원을 투입해 돌담밭 정비 개발과 환경개선,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벌인다. 정부는 이와관련 가칭 '농어촌 다원적자원 보전관리법'을 연내 제정 목표로 입법을 추진중이다.

제주자치도는 보전·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제주돌담·돌담의 전수조사, 장인 지정·육성, 시범지역 지정, 전통농법·친환경농업, 단계별 관리시스템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시영기자**

설 앞뒤 중기 육성자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억원을 원스톱 지원한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설 자금 지원을 위해 행정시,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설자금 신속 종합지원반'을 설치·운영해 115곳의 중소기업육성자금 협회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오는 2월말까지 이뤄지는 이번 원스톱 지원은 경영안전자금 민원 처리 단축(10일 이내에서 익일까지)과 함께 만기 연장 자금 상환전이라도 추천서를 발급해줌으로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신규자금으로 연계해 설명절을 앞두고 상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특히 원자재 값, 농산물 가격 등 상승으로 대금결제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에 위해 설 전후 지원을 통해 임금해소 및 운전 자금결제 처리에 도움을 줘 도내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에 2.8-3.5%의 이자를 보전해주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이다. **오은지기자**

수출감귤 품질관리 여전히 '걸림돌'

부패과 등 난제... 수출창구 단일화 필요

제주감귤의 캐나다·미주지역 수출 활성화를 위해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수출능력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수출과 내수시기 중복, 장시간 운송에 따른 눌림현상, 수출창구 다원화는 여전히 감귤수출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22일 제주자치도청 2층 회의실에서 제주 농수산식품 미주시장 판촉행사 결과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해외판촉행사에 참가한 제주감귤농협무역사무소, 제주감귤연합회, 제주수산물수출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그동안의 추진결과를 공유하고 1차산품

수출 문제점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제주감귤무역사무소는 향후 감귤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품질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감귤무역사무소의 지난해 캐나다지역 수출물량은 440톤. 이 중 2415개 샘플 품질조사 결과 사비과 80개(3.3%), 부피과 95개(3.9%), 부패과 67개(2.7%) 등 10%가 이상품과로 구분됐다. 지난해 15%보다 낮은 수치지만 2012년산 감귤 품질이

좋았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니다. 때문에 감귤무역사무소는 향후 추진 전략으로 품질 저하 현상을 막기 위한 감귤선과, 선과시설, 안전성 확보 필요성을 제안했다.

제주감귤연합회 관계자는 "감귤수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수출전용선과장 건립, 수출전용상자 개발 보급 등 수출협의회를 통한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710-3846.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스크린골프연습장
 제주 GOLF
 Tel. 744-3102
 연동 동풍S클래스 앞 제일마트 2층

제민신협 2012년 BIG³ 大賞수상! 大賞 大賞 大賞

공제 전국 大賞
경영평가 大賞
사업평가 大賞

조직원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 1등 신협이 되겠습니다.

본점 753-0601 도남지점 753-0621
 신제주지점 747-0601 노형지점 748-0621

제38기 정기총회에 조합원 여러분을 모십니다!

조합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정관 제6조, 제7조, 제30조, 제3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38기 정기총회를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3년 1월 28일(월) 오전 11시
 2. 장 소 : 제주시민회관
 3.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2012회계년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
 제2호 의안 : 2012회계년도 결산보고서 승인
 제3호 의안 : 2013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제4호 의안 : 상임이사장 보수 결정
 제5호 의안 : 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개정
 4. 기타사항
 총회에 참석하시는 조합원님께서는 통장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고 식전행사가 있으므로 **오전 10:30분**까지 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 17.
제민신협동조합이사장